

편지를 받고...



기증자 / 김병한

조혈모세포를 받은 분한테서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 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도 움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즐거웠고,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골수기증을 신청은 했었지만 무슨 사명이나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 다.

오히려 골수기증 신청 계기를 생각해 보면 웃음만 나오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저를 욕하거나 화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합니다.

99년 겨울,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서 울에 일요일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자 친구(지 금은 집사람)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종로로 나갔 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돈은 없 고, 여자 친구는 올 시간은 아직 남았고...

그때 눈앞에 현혈의 집이 보이더군요.

현혈하면 먹을 것 주잖아요.

그래서 현혈의 집에 가서 현혈을 하면서 여자 친구 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읽을 거리를 찾는데 골수기증신청서가 보였습니다. 골수기증신 청서를 읽고 있다가 여자 친구가 왔길래

“나, 이거 신청하면 어떨까?” 했더니

“니 맘대루” 하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기증신청을 했습니다.

제 골수를 받은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몇 번씩 받고, 아직 제가 어릴 때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서 나와 회복실로 들어가셨는데 아버지 팔뚝에 꽂혀있는 수혈 바늘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저 피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수혈을 받고 지금 살아나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후로 헌혈을 해오고 있다가 그 날 어떤 인연인지 골수 기증 신청을 한 것 뿐입니다.

지금도 그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골수를 받은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자신도 회복이 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큰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자신은 엄두도 못낼일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장하신 분들은 저보다도 지금 투병중이신 환자분들과 병간호를 하고 있는 가족분들입니다.

골수를 기증 하고 나서 병실에 와서 마취가 풀리는데 6시간은 꿈쩍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

고 해서 꿈쩍도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움직일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시간 누워 있는 것도 힘든데 몇 년씩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골수이식을 못하면 혈액을 혈소판을 수혈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하는 환자나 또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투병 중인 분들과 가족 되시는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견디어 내셨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골수이식을 못받으신 분들도 기운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 큰 기쁨



기증자 / 문종철

2003년 0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핸드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한국.....”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진소음소리에 묻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나는 조금은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반문을 하였다.

“어디라고요..? 하고,

사실은 몇 일 사이에 스펀성 전화를 여러 번 받은 터라 이번 전화도 그러려니 했었던 것이 다.

다시 들려오는 전화기 저편에서는 조금은 당황한 목소리로 “저.. 혹시 작년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하셨죠?”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 의

사를 물어오는 순간 “아차” 싶으면서 조금 당황하게 되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쫓겨 바쁘게 사는 생활 중에도 가끔씩 작년에 헌혈을 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신청 한 것을 생각하면 “내게도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을까?” 하고는 혼자 생각하고는 했으니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제 경우와 같이 1년 안에 조직이 맞는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행운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 번의 전화 통화와 협회 방문 후 여러 날이 지난 0월 0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 검진에 임하게 되면서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돼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풀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막연하게 생각되는 불안감은 “혹시나” 하는 내 건강에 대한 불신감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일이다시피 마시던 술 때문에 내몸에 이상이 있어 골수 기증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재검진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는 역시나 하는 심정으로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담당의사 선생님을 만나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십니까?” 하고 묻길래,

“예,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왕 좋은 일하시는데 당분간만이라도 술을 끊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사 통과(?) 받고 수술하는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수술하는 날까지 가끔 한 두잔이야 마셨지만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환자를 생각해 되도록 절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물류를 배송 하는 일이라, 사실 수술하는데 시간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일간의 핑크를 보충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상황 설명을 하고, 물건을 미리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모두들 흔쾌히 이해를 해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입원해서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했고 다음날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었던 점은 없었고요, 혼자서 독방을 쓰려니 누구에겐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인지라 혼자서 호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다시 일상의 본업으로 돌아와 퇴원 다음날부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일 동안은 무리하지 말라는 이영민 선생님의 충고가 있었지만 일도 일러려니와 그다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듯 싶어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처음에 반대했지만 나의 강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허락하고 병실에서 옆을 지켜준 집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했던 일이 선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지나간 나의 모든 잘못(알고 혹은 모르고)에 대한 조그만 보속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다짐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가끔씩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듯이 조혈모세포(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도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앞으로는 한사람도 없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편집자 주)

보속: 키틀릭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일



아무나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재산

기증자 / 이민욱

이제 누가 봐도 완전한 봄이다. 먼 산을 바라 보면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해 녹음을 밖으로 표출해 내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보인다. 먼지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병원 무균실에서 투병하고 있을 백혈병 환자들이 상승하는 봄기운을 받아 쾌유하기를 비는 바이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수술을 한 후에 소감문을 써달라는 숙제를 받았을 때, 학창시절에 백 일장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누가 봐도 멋진 글을 한 번 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온갖 미사여구와 어려운 단어들. 결국 몇 줄 이어가지 못하고 글을 쓰던 손은 멈추고 말았다. 누가 봐도 멋진 글보다는 그냥 솔직히 써내려간 글이 더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조혈모세포(골수)기증 등록을 한 것은 2002년 3월 부대에서 헌혈을 할 때였다. 군입대전 TV를 통해서 백혈병 환자, 큰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간혹 봤는데 선뜻 나서서 돕지는 못하다가 우연히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을 할 기회가 와서 주저 없이 등록신청을 했다. 등록을 하고 시간이 지나 2003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연히도 같은 내무실에서 생활하는 선임병 두명이 조혈모세포(골수)가 맞으니 기증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한 명은 기증을 거부했고 다른 한 명은 동의는 한걸로 기억된

다. 그 두 명을 보면서 조혈모세포(골수)기증 등록을 한 것도 잊은 채, 나도 조혈모세포(골수)기증 등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다가 기증할 의사가 없냐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갑자기 다가온 일에 황당하기도 했고 놀라워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엄청 뛰었다.

기증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부모님의 동의와 당시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했다. 부대측에서는 흔쾌히 동의가 있었지만 문제는 부모님, 특히 엄마였다. 완강히 반대하셨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이모가 하면 믿는 엄마였기에 이모의 힘을 빌려 설득에 성공하여 기증하기로 했다. 나중의 이야기이지만 수술 직전 엄마는 전신마취를 한다는 이야기에 또다시 반대를 하셨다. 그리고 살릴 수 있다는 가슴 벅찬 느낌과 솔직히 이 일로 인하여 몇 일 밖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진 채로 동의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되었다.

4월 중순 우리 부대는 일년에 두 번 있는 큰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 훈련을 뒤로한 채 나는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수술을 받기 위해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하기 전에 중대장님을 비롯해서 내 후임병들까지 수술 잘 받고 오라고 많이 격려해 주었다. 그중에는



기증자 이민욱 님(사진왼쪽) 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유효순 코디네이터

골수기증 수술이 엄청 고통스럽다며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 역시 수술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술 직전 약간 긴장되기도 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눈앞이 흐리고 어질어질 했지만 고통 없이 수술이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이 저절로 나왔던 것 같다. 병실로 옮겨졌고 모래주머니를 깔고 지혈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병문안을 오셨다.(우리집은 충남 서산이다. 원래 오지 않으시려다가 회사도 하루 빠지고 오셨다는 것이었다.) 나의 상태가 어떨지 살펴보고 유효순 코디네이터, 이영민 과장님과 얘기를 하시고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셨다. 나는 지혈과 수술직후의 통증 때문에 몸 한 번 일으키지 못했다. 나중에 병원에 들어가기 전과 병원

을 나가면서 흡연실에서 담배를 한 대씩 태우셨다고 이영민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가 나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수능 후 예상보다 낮게 나온 점수로 대학입학 원서를 쓸 때와 군입대전에 보고 이번이 세 번째 인 것 같다. 좋은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이 일을 결심한 것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수술당일은 몸을 움직이기가 고통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상태는 매우 빠르게 호전되었다.

수술 이틀 후 퇴원을 했다.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는 몸에는 약간 무리였다. 버스의 충격이 그렇게 큰 줄은 평소에 몰랐었다. 그날따라 요철은

왜 그리도 많은지.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었는데 수술 전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이 떠날 줄을 몰랐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 동아리 엠티였다(내 대학생활에서 동아리를 빼놓고서는 이야기가 안된다). 엠티장소가 다른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엠티장소로 잡은 학교 수련원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터라 꼭 참석하고 싶었다. 집에서는 가지말고 쉬라고 말리고 말렸지만 몸은 이미 버스에... 거의 2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너무 반가웠다(비록 술과 함께하지 못한 엠티였지만). 바위 위에 앉아 비릿한 바닷바람을 맞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후배들과 얘기하던 그때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롤링페이퍼를 쓰면서 엠티는 끝나갔다. 내 페이퍼에는 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와준 나에게 고마워하는 글이 군데군데 보였다.

부대가 중요한 훈련중인데도 나는 부대측의 배려로 집에서 약 일주일간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자 모임이 있는 날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어서 참석하지 못 해 무척 아쉬웠다. 부대에 복귀한 후 많은 사람들이 몸은 어떠냐며 걱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골수이식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대부분의 질문이 “아프지 않냐?”, “어디에서 뽑냐?”, “누구에게 줬느냐?” 등이었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 어떻게 하면 자기도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는 사람이 몇 명 생겼으니, 어쨌든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의식전환은 된 셈이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 후 나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약간의 유명

세를 탔다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상급부대로 보고된다. 이번 일 역시 우리 5사단 사령부에 보고되었고 5사단 정훈공보부에서 국방부에 보고하고 지역신문에 제보도 하였다(그탓에 나는 간단하게나마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경인일보에 “타인에 골수기증 빛나는 군인정신~”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23살의 나이에 입신양명을 하였으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비록 기사에 군인정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전역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군인이 아니어도 나는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뒤늦게 하나 이야기하자면 사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수술의 가장 큰 고통은 수술자체보다 “소변기”착용이 아닌가 싶다. 수술전 소변기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기를 착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몸을 파고드는 그 느낌이란 정말... 게다가 소변기를 뽑을 때, 예쁜 간호사 누나가 “소변기 빼려 왔어요~”라고 하면서 웃으며 다가오는데 무지 민망했다.

지금까지 약 20년이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는데 군에 입대하고 나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 큰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또 남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가진 것 같아 든든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별 탈 없이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수술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유효순 코디네이터 누나, 이영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투병중인 백혈병 환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작은 희생 = 누군가의 행복

기증자 / 이재광



기증자 이재광 님과 부인

처음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연락을 받은 건 3월이었던 같다. 그리고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는 듯하다. 군대에 있을 때 성덕 바우만을 보고 뜻하지 않은 기회에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신청을 하였지만 난 사회생활에 바빠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차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얼떨떨한 기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였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무척 반대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 아내가 임신중이어서 반대가 무척 심할 듯 했다. 퇴근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너무나 쉽게 기증을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하여 오히려 내가 당황한 듯 했다.(조금 섭섭함도 있었다.)

한참 더운 7월에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을 하게 되어 휴가처럼 신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서 처음 환자복을 입고 링겔을 달고 막상 수술실로 들어가니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모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잘 대해 주어서 오전에 들어간 수술이지만 한잠 자고 나오니 약간 빠근한 듯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괜찮은 것 같았다.

아내는 항상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자국을 보면서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한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또다른 누군가의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 동료들은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무척 뿌듯하다. 어떤 편견에서 바라본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듯하다.

살아가면서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나에게 오게 되어 무척 기쁘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갈 그분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끝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업무며 맛있는 음식 등을 사다 주신 조지연씨에게 무척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용기를 내세요!

기증자 / 이정주

이렇게 뜻 깊은 일에 동참해서 기쁩니다. 군생활 하던 중 헌혈하게 되었고, 조혈모세포(골수)이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 5년정도 지났기에 잊고 생활하던 중 협회의 코디 분의 전화를 받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하고 맞는 아이가 있다는 말에 당황했어요.

TV에서 아이들의 고통과 부모님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뿌리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공여를 하면 제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류는 하시는데... 형님과 누님이 제 몸에만 이상이 없으면 공여를 하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었지요.

수술 전 담당 의사분의 설명과 코디분의 상세한 설명으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었어요.

수술 후 뒤쪽이 묵직한 느낌 말고는 별다른 통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있으면서 내가 한 아이를 구했다는 생각 그 부모님의 환한 웃음을 생각하니 저 또한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환자 분이 완쾌까지는 아직도 많은 치료가 뒤따른다고 하는데 꼭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수술 후 주위에서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부모



기증자 이정주 님(사진 왼쪽)

님까지 칭찬해주시니 이보다 더한 효도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혈모세포(골수)기증에 대한 굳은 신념과 지식을 가지고 기증신청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헌혈하던 중에 기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증신청을 하게 됐지요.

주위분들은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시지만 이 칭찬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신청하라고 하면 선입견 때문인지 꺼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좋은 일 인줄은 알지만 주저할 뿐이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행복의 비밀

기증자 / 최수연



어떻게 잇을 수 있을까요... 삶의 한 순간에 문득 찾아 온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는 환우분을 일으켰지만 저 또한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그 순간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회 대학부 안에 한 친구 부모님께서 병세가 계속 악화되셔서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은행 관련 단체에서 오셔서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을 소망하는 대학부원들의 혈액채취를 도와주셨습니다. 전 그 때만해도 그 많은 대학부원들 중에 단지 한 사람이었고, 조혈모세포(골

수)기증에 동의하고 혈액채취를 한다는 것은 친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골수를 줄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업과 맡은 일들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골수기증을 위한 혈액채취를 했다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걸려 온 전화였고,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우분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

다. 저는 순간 멍해졌고, 혼자 가만히 한참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분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제 자신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주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분명한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과 유전자가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과정을 직접 행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길 것이라는 당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저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모님에게도 말씀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먼저 눈물로 저를 끌어안으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 주셨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기까지에는 수술을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우분의 상황, 기증자의 상황, 병원의 상황 등 해결되어야 할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조절하고 조율하

며 이루어나가는 데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분들과의 만남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저를 부끄럽고 겸손하게 했고, 마냥 두렵고 떨릴 줄만 알았던 그 과정 하나, 하나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지만, 나의 골수를 받게 될 그 누군가와 그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

수술 후, 제 골수를 받으신 환우분께서 점차 회복되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저 또한 현재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골수기증을 하기 위한 과정들, 기증을 하는 순간, 그 이후의 치유시간들까지도 제 생애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알기에, 그러한 일 가운데 저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저의 조혈모세포(골수)를 나눈 누군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온 맘으로 느끼며, 그 분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 기쁨으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중략) 얼굴은 작게 보여도/ 마음은 크고 넉넉한 별/ 먼 데까지 많은 이를 비추어 주는/ 나의 하늘 친구 별/ 나도 날마다/ 별처럼 고운 마음/ 반짝이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해인님의 시 <별을 보며>中’

저도 별처럼 살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